

바람과 해를 닮은 정치

양의원영 보도자료



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02호 | E: yangyi.assembly@gmail.com | T: 02-784-8834 | F: 02-6788-6740

수신: 각 언론사 산업부·정치부·환경부 출입기자

날짜: 2023년 4월 28일(금)

문의: 양의원영 의원실 (이정훈 보좌관 010-4066-2554)

총 분량: 3쪽

윤석열 정부 ‘석탄발전 가동축소’ 탄력적 운영으로

사실상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무력화,

대기질 ‘나쁨’인 날 전년 대비 11.1% 늘고 ‘좋음’인 날 22.5% 줄어

- 양의원영 의원,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재난으로 인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발전 가동 대폭 줄여야”
- “연료비를 덜 지출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하고, 태양과 바람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답”

작년에 비해 대기질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. 윤석열 정부 들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 여러 원인들 중 하나이다.

양의원영 의원실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)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‘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농도’ 자료에 따르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기간 동안 ‘나쁨’인 날은 11.1%(2일) 늘고, ‘좋음’인 날은 22.5%(9일) 줄어들었다.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된 2019년 이후 대기질은 꾸준히 좋아졌으나, 이번 4차 기간 중에는 오히려 나빠진 것이다.

*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(‘22.12.~’23.3.)

정부는 2018년에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을 제정하고 2019년부터 계절적

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(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)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에게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.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21개 과제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‘석탄발전 가동 축소’이다.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.

[한국전력공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‘석탄발전 가동 축소’ 탄력운영]

‘석탄발전 가동 축소’는 석탄발전 가동정지, 상한제약 등을 통해 석탄발전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조절하려는 것이다.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 석탄발전 53기 중 8~14기 가동정지, 최대 44기의 상한제약이 추진될 예정이었다.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한제약을 유연하게 하고, 미세먼지 배출수준은 전년 수준으로만 감축하는 등 ‘석탄발전 가동 축소’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나섰다. 연료 가격이 비싼 액화천연가스(LNG) 대신 석탄발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.

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연말 기준 약 34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. 국제 연료비의 폭등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연료비가 급등했지만, 생산원가가 반영되지 않는 왜곡된 전력시장 구조에서 적자를 보면서 전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.

[전년 대비 초미세먼지 ‘나쁨’일 수는 11.1% 늘어나고, ‘좋음’일 수는 22.5% 줄어들어]

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시행 전과 비교하여 약 47%(8,932기가와트시) 정도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감축했으나,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약 32%(6,021기가와트시)를 감축하는데에 그쳤다<표1>. 1차~3차 운영기간 동안 대기질이 지속적으로 좋아졌으나,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대기질의 ‘나쁨’ 일 수는 전년에 비해 오히려 2일(11.1%) 늘어났고, ‘좋음’ 일 수가 9일(22.5%) 줄어들었다<표2>.

[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, 확대해야]

기후위기로 인하여 이상기온과 바람의 세기도 줄어드는 등 대기환경의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. 기존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 조건으로는 대기질을 이전처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. 따라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.

양의원영 의원은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”며 “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발전 가동을 대폭 줄여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또한 양의원영 의원은 “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의 60~70%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”며 “연료비도 덜 지출하고, 기후위기도 완화하는 방법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조건을 강화하고, 국산 태양과 바람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다.”라고 밝혔다.

/끝/

※ 붙임

<표1.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소 가동실적>

[단위: GWh]

구분	시행 전 (`18.12~`19.3)	제1차 (`19.12~`20.3)	제2차 (`20.12~`21.3)	제3차 (`21.12~`22.3)	제4차 (`22.12~`23.3)
발전량	73,587	61,129	54,275	56,942	54,330
감축량	18,628	35,289	35,783	27,560	24,649
	시행 전과 비교	-16,661(-89%)	-17,155(-92%)	-8,932(-47%)	-6,021(-32%)
	직전 차수와 비교	-16,661	-494(-1%)	8,223(22%)	2,911(11%)

(전력거래소 제출자료 재구성)

*발전량 및 감축량 산정 기준은 공공기관 석탄발전기 기준

<표2.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농도>

구분	시행 前 (`18.12~`19.3월)	제1차 (`19.12~`20.3월)	제2차 (`20.12~`21.3월)	제3차 (`21.12~`22.3월)	제4차 (`22.12~`23.3월)
'좋음($15\mu\text{g}/\text{m}^3$ ↓)' 일수(일)	13	28	35	40	31
'나쁨($36\mu\text{g}/\text{m}^3$ ↑)' 일수(일)	35	22	20	18	20

(출처: 환경부)